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구름 조금

제목 : 나의 선데이

오늘도 어김없이 일요일이 밝았다. 나는 오늘도 7시반 정도에 일어나

TV를 켜다.

아직 볼만한 프로그램은 하지않기 때문에 나는 조금더 자기로 했다. 다시 일어나

보니 8시 45분쯤이 됐다. 그래서 또 TV를 켜보니 현재 일본 인기인화 장구가 하고있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장구를 보고 11시 쯤에 내일 볼 쿼시함을 대비해 문제집과 전과를

읽고 풀었다.

다 풀고 난 마루로 가서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했다. 게임을 하는데 엄마가 아점(아침점심)을

먹차고 하였다. 나는 그래서 아점을 먹고 다시 컴퓨터로 가서 컴퓨터를 끄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TV를 켜다. 오늘은 아빠는 일이 있다고 나가셨고 엄마는 내방에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TV를 마음대로 볼수있었다. 어쨌든 TV를 켜니 또 인기가 있는 일본영화 코난극장판

이 하였다.

그래서 또 2시간 후 ~ ~ ~ 6시 정도가 됐다. 나는 다시 피곤해서 잠을 잤다. 그리고 일어나니

8시가 되서 아빠도 오셨다. 그래서 다같이 최과다이순신을 시청했다 또 끝나고

개그콘서트를 보고 나는 잠을 잤다. 한마디로 오늘 하루는 "먹고 자고 놀고" 였다.